

# 전통음악이 베푸는 '열락'의 세계

90년대 들어 개론서 출간 활기... 다양한 기획으로 독자 끌어들이야

문화체육부는 2월의 문화인물을 조선 초기의 학자 성현(成俔 1439~1504)으로 정했다. 성현은 시와 문에 능통한 학자로 수필집 《용재총화(慵齋叢話:1504)》로도 널리 알려져 있지만 무엇보다 《악학궤범(樂學軌範:1493)》의 편찬자로 후대 사람들의 숭앙을 받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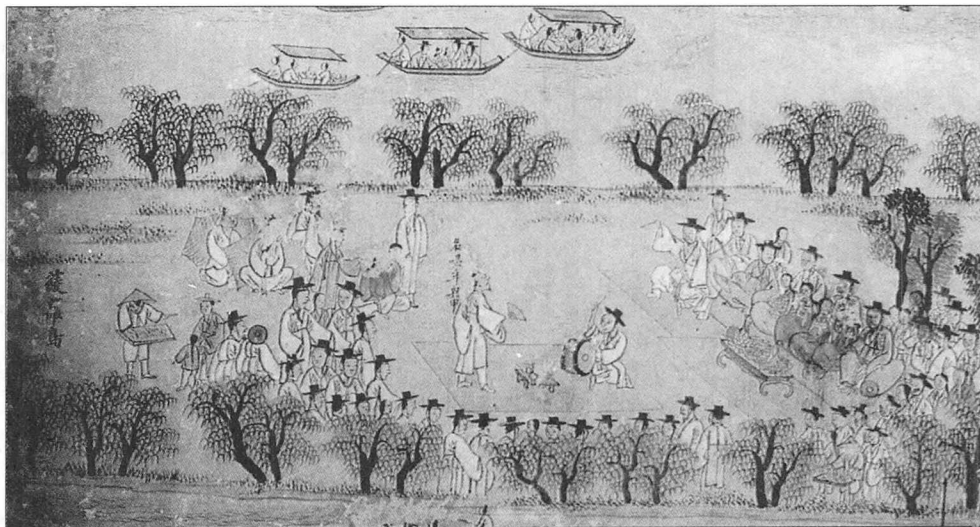
《악학궤범》은 아악·당악·향악 등 당시의 음악전반을 포괄했을 뿐 아니라 춤과 악기의 진설(陳設), 의궤(儀軌)와 악보 등을 망라해 우리 전통음악연구에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자료다. 아울러 이 책은 모든 정치의 궁극적인 이상을 '악(樂)'으로 여겼던 우리 선조들의 음악관과 세계관을 엿보게도 한다. 삶이 곧 음악이고 음악이 도(道)요 이상(理想)이었던 우리 선조들이 향유했던 전통음악은 지금 우리에게 무엇인가. 성현의 '문화인물' 선정은 우리 전통음악에 대한 관심을 상기시킨다.

어쩌다 흘러들게 된 '영산회상'의 느리고 장엄한 곡조에 마음을 빼앗겨본 적이 있거나 판소리 한 대목, '사물(四物)'의 변화무쌍한 리듬에 혼을 맡겨버린 경험이 있는 사람이라면 우리 전통음악이 가지는 매력이 서양음악의 그것과는 판이하게 다르다는 것을 선형적으로 알게 된다.

## 전통음악의 세계로 이끄는 개론서

우연한 체험이 준 감동에 깊이를 더하고 싶은 사람은 서점으로 가면 된다. 전통음악의 매력 속으로 한 발 더 이끌어 줄 안내서

**관심과 애정 있는 독자를 전통음악의 세계로 이끌 만한 개론서는 적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통음악을 통합학문적 관점에서 살피거나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살피는 등 다양한 영역의 연구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19세기 판소리 공연과 명창 모흥갑의 연주. 기산 김주근의 그림(《한국근대음악사》중).

들이 적지 않게 나와 있기 때문이다.

전통음악의 음악적 구조나 역사적인 흐름을 일반인들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기술하는 작업에 학계가 조금씩이나마 관심을 돌릴 수 있게 된 것은 아무래도 90년대 들면서부터다. 1975년 출간된 장사훈·한만영의 《국악개론》 같은 책이 있기는 했지만 교과서 형식이라 일반인들이 읽기에는 무리가 따랐다. 70·80년대는 '우리 것'에 대한 관심이 고조됐고 국악과를 개설하는 대학이 늘어나면서 연구자 수도 급증했지만, 이 시기에는 아무래도 학술논문집이나 학회지 등이 주를 이루었다. 대중용 책을 저술하는 데까지는 여력이 미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90년대 출간돼 현재 서점에서 찾을 수 있는 전통음악개론서는 10권 남짓. 《전통음악개론》(김해숙·백대웅·최태현 공저/어울림

《우리가락 우리문화》(한명희/조선일보사) 《O.K 국악》(임수철/작은우리) 《우리음악, 그 맛과 소리깔》(어화등등 두리등등 이야기 국악)(기청/세광음악출판사) 《알기쉬운 국악개론》(이성천 외/풍남) 《재미있는 국악길라잡이》(이성재/서울미디어) 등이다.

중앙대 음대 한국음악과의 백대웅·최태현 교수와 김해숙(이대 강사)씨가 함께 펴낸 《전통음악개론》은 현재 연구되고 있는 전통음악을 글과 오선의 기보법으로 정리한 것이 눈길을 끈다. 음계·장단·형식 등 우리 음악의 기초를 해설하는 한편 옛 기보법과 관련 고악보도 수록했다. 현존 전통음악을 악·가·무와 종합예술형태, 기악연주·성악연주 등 연주형태별로 분류하고 연주법과 특징 등을 해설하는 한편, 국악기의 특성도 함께 설명한다. 서울시립대 국악과 한명

희 교수가 펴낸 《우리가락 우리문화》(조선일보사)는 우리 전통음악을 풀어내는 독특한 해법을 담고 있어 흥미롭게 읽히는 책이다. 가령, '우리 음악은 느리다'는 특성을 설명하는 대목에서는 서양음악이 심장박동율 리듬의 기본으로 한다면 우리 음악은 '숨(호흡)'에 기본을 둔다는 식이다. 결국 우리 문화의 특성이야말로 우리 음악이 배경이 된다는 것.

영화 '황진이'와 '꿈' 등의 음악을 작곡한 바 있는 국악 작곡가 이성재씨가 펴낸 《재미있는 국악 길라잡이》는 국악의 다양한 장르를 해설과 함께 감상할 수 있도록 '오디오 북' 형태로 꾸며진 것이 특징. 앞의 책들이 전문가들이 전통음악의 이론화·체계화를 통해 현대화하고 보편화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면, 이 책은 전통음악의 일반적인 사

### 방법론

A. 멘네 지음/김보현 옮김/224면/9,500원

정의의 방법, 구별의 방법, 나눔의 방법, 정당화의 방법과 같은 일반적인 과학의 작업 방식을 소개하고 있는 과학자들의 필독서. 유비, 가정, 기호 사건과 기호 형태의 구별 등과 같은 과학적 언어에서 중요한 문제들도 함께 다루고 있다.

### 현대 지식론

K. 레러 지음/한상기 옮김/384면/16,000원/양장

지난 30년간 지식론 분야에서 이루어진 탐구 성과들을 기초론, 정합론, 외부론 중심으로 소개하고 있다. 다양한 이론들의 동기, 배경, 기본 주장, 장단점 등을 고루 기술하고 있어 현대 지식론의 흐름을 파악하기에 적격이다.

### 정신은 어떻게 출현하는가?

조용현 지음/320면/10,000원

철학적 관점에서 도구, 의식, 언어의 진화를 통해 인간이라는 동물의 통시적·역사적·시간적 형성 과정을 살펴본다. 20세기 이후의 해부학, 고고학, 생물학 중심의 진화설에 철학적 사고를 덧입힌 작업이 관심을 끈다.

### 인간: 철학적 인간학 입문

B. 몬딘 지음/하재운 옮김/336면/11,000원

인간 존재가 나타내는 다양한 현상들 즉 생명, 지식, 자유, 언어, 문화, 노동 등에 현상학적 방법으로 접근함으로써, "인간 존재는 궁극적으로 어떤 것이어야 하는가?"라는 선형 철학적 문제에 대해 해명하고 있다.

철학서적 전문출판 **서광사**

130-072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용두 2동 119-46 영입부 924-6161 편집부 924-6165 팩시밀리 922-4993

# 평범하게 사는 의약인들의 정담

## ‘수석회’ 31번째 동인수필집 《화심(花心)과 인심(人心)》 출간



의료인들의 수필 동호회 ‘수석회(水石會)’(회장 이성락)가 30년 동안 꾸준히 동인집을 펴내고 있어 화제다. 1965년에 모임을 결성하고, 66년 첫 책 《물과 돌의 대화》(정음사)를 출간한 후 한 해도 거르지 않은 이 동인집은 최근 《화심(花心)과 인심(人心)》을 출간함으로써 31집을 기록했다.

이번 31집에는 대한의사협회의 혁신이나 의료보험 포괄수거제(包括酬價制)·의료일원화에 대한 제언 같은 의료계의 목소리를 담은가 하면, 새로운 질병 에이즈의 실태나 증상·감염경로 등을 밝힌 글을 신기도 했다.

수석회는 《의사신문》 등 여러 지면에 산발적으로 실린 글이 금세 사라져버리는 데 안타까움을 느낀 이들이 지금은 작고한 김사달씨(당시 대한의학협회 공보간행 상임이사)를 중심으로 모임을 결성했다. 첫 책을 만들 때 장년이었던 초창기 회원들은 31집을 만든 지금 반 수 이상 세상을 떠났다. 사람들이 가버렸는데도 그들의 글을 담은 책이 누렇게나마 서가에 남아 있으니, 수석회 결성 목적만큼은 달성된 셈.

사람들이 ‘수석(首席)한 사람들 모임’ 혹은 ‘수석(水石) 수필 동호회’라는 뜻으로 오해하기도 하는 ‘수석회’라는 이름은 물과 돌처럼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여 만드는 화음이라는 뜻이다. 일각에서는 ‘수요일에 만나 돌머리들’이라는 우스갯소리를 하곤 한다. 회원은 주로 의사들이지만, 창립부터 지

금까지 다양한 이력의 의료계 인사들이 참여했다.

의사신문의 편집국장을 역임했던 작고한 김윤기씨, 제일약품 대표로 약업계의 선구적 역할을 담당했던 한원석씨, 동아제약 회장 강신호씨, 의사라는 본업 외에도 음악에 조예가 깊어 한국 오페라단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던 김기영씨, 월간 《뉴시춘추》를 창간한 한형주씨 등 회원들의 면면이 다채롭다. 창립회원들도 지금까지 4명이나 남아 있다.

수석회는 그간 학창시절·고향·어린시절 등 회고담, 국내외 여행기, 의사로서 느끼는 힘겨운 이야기나 보람, 후배들에게 주고 싶은 이야기들을 동인지에 담아왔다. 세월이 흘러 회원들이 연로해진 탓인지 요즘은 모이기만 하면 옛날 이야기로 꽃을 피우는데, 60년대 모임 초반기의 에피소드, 작고한 분들의 뒷얘기 등을 모아 책으로 엮겠다는 계획이다.

— 이현주 기자

항들을 보다 쉽게, 흥미를 유발할 만한 거리를 많이 제공하며 기술한 책이다. 《O.K 국악》도 궤를 같이하는데, 작곡가이자 음악 평론가인 저자가 독학으로 공부하며 깨친 전통음악의 원리를 알기 쉽게 이야기식으로 풀었다.

강릉대 국악과 교수인 신대철씨가 쓴 《우리 음악, 그 맛과 소리같은》은 저자가 <얼과 문화>라는 잡지에 연재했던 글을 정리한 책으로 전통음악에 대한 개괄적인 이해와 우리 음악을 접하는 이들이 한번쯤은 생각하고 넘어가야 할 거리들을 제공한다.

### 다양성 부족해 아쉬움

개론서는 아니지만 《노동은의 음악상자》(노동은/웅진출판)나 《인간과 음악》(백대웅/어울림)을 찬찬히 읽어보는 것도 전통음악과 ‘한국음악’ 전반에 대한 문제의식을 공유하게 한다. 이 책은 비단 전통음악뿐 아니라 불교성가, 서태지를 비롯하여 일본 대중문화까지 고찰함으로써 한국음악이 어떻게 발전해가야 하는지에 대한 제언을 담고 있다. 《인간과 음악》은 국악과를 졸업하고도 방송국 프로듀서로 일하며 서양음악프로를 제작하는데 심혈을 쏟았던 저자가 김소희 명창의 ‘심청가’ 한 대목에 혼을 뺏겨 국악 공부를 다시 하게 된 배경부터 ‘음악’이란 어떤 것인가, 우리 음악은 무엇인가에 대한 진지한 물음을 마치·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듯 자분자분 풀어쓰고 있다.

관심과 애정이 있는 독자를 전통음악의

세계로 이끌 만한 개론서는 적지 않다. 그런데도 이 책들을 훑으며 아쉬움이 드는 것은 무엇 때문일까.

그것은 이들 책이 그다지 다양하지 않기 때문이다. 한명희 교수는 “전통음악 자체가 악보가 아니라 구전으로 전해지던 것이어서 이를 채보하고 정리하는 작업만해도 엄청난 시간과 노력을 요한다”며 학계의 여력이 아직까지 대중용 개론서를 기획하고 저술하는 데까지 미치지 않는다고 사정을 설명한다.

한교수는 앞으로 전통음악을 통합학문적 관점에서 살펴 그 속에 담긴 미학과 역사와 철학을 밝힌다거나, 비교문화적 관점에서 우리 음악이 다른 민족음악과 다른 점을 살펴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런 다양한 접근방식이 다양한 기획의 밑거름이 되리라는 기대다. 대중들이 전통음악을 외면해온 것도 관련 책을 풍성하고 다양하게 하지 못하는 한 고리로 작용한다. 찾는 독자가 적으니 출판사에서 적극적인 기획을 하지 않고, 요구가 없으니 학계나 연구자들도 저술 작업에 뛰어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독자들의 관심, 전통음악을 현대화하려는 학계의 노력과 상업성을 뛰어넘는 출판사들의 적극적인 기획이 있을 때, 우리 ‘악’이 주는 ‘열락(悅樂)’을 보다 많은 사람들이 경험할 수 있게 되지 않을까.

— 박남정 기자

국내최초의 종합출판정보 서비스

# 출판정보

◆ 구독료 안내(주 1회 발행)

6개월 구독시 ▶ 12만원  
12개월 구독시 ▶ 20만원

◆ 담당 : 김혜경

연락처 : TEL. (02)271-0494  
FAX. (02)271-0495

## 명목가치 2만원, 실물가치 20만원, 효용가치 200만원 검색프로그램만으로도 돈이 아깝지 않습니다.

『출판정보』는 50개의 일간지와 해외 주요국 저널의 출판관련 기사와 광고를 수록할뿐만 아니라 정책자료, 조사자료 등 발굴정보와 자료도 폭넓게 제공하는 무궁무진한 정보의 광맥입니다. 4개 신문의 구독료나 스크랩하는 인건비정도의 회비로 받아볼수 있는 『출판정보』는 체계화된 정보를 한꺼번에 편안히 앉아서 받아볼수 있는 장점에 정보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기사를 검색하여 볼수 있는 기사검색프로그램과 검색데이터를 제공해 드립니다. 이는 정보의 가치를 최대로 활용하고자 하는 독자분들의 욕구에 부응코자 제공되는 『출판정보』만의 특별한 서비스입니다.

발간형식 : 주1회(매주 금요일)    판형 및 분량 : 4×6배판 약 180여쪽    발송방법 : 우편발송

◆궁금하신 분은 지금 연락하여 주십시오 무료로 1권을 보내 드립니다.